

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갈등 고조

전북도 긴급 지원 179억원 법정전출금서 상계 처리... 도교육청 “명백한 불법... 법적 대응 불사”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새해 벽두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전북도가 도교육청 대신 어린이집에 긴급 지원한 누리과정 운영비 179억원을 법정전출금서 상계 처리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해 말 도교육청이 해당 금액에 대해 미편성을 결정하자 지난 4분기 법정 전출금 617억원 중 179억원을 뺀 438억원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도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지원해야 할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를

대신 지급한 만큼 상계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도는 지난해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도내 어린이집이 경영난을 겪자 두 차례에 걸쳐 179억원을 직접 지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전북도가 누리과정 예산 지원액을 법정 전출금에서 상계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를 돌려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법정 전출금에 손을 대는

것은 불법이고, 이런 불법을 용인하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률은 관여 자치단체가 지방교육세 등을 받은 뒤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넘겨주게 돼 있다.

관련 법상 이 예산은 학교 설립과 운영, 교육환경개선비 등에만 쓸 수 있을 뿐 어린이집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일단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179억원을 정상적으로 보내주도록 촉구하고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

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중앙 정부의 잘못으로 도내 기관이 서로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돼 안타깝다”면서도 “전북도의 난처한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명백한 불법인 만큼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누리 예산은 17개 시도 중 전북만 편성하지 않는 한편 법정 전출금 삭감에 대해 도교육청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어 추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재용 기자

도 올해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

올해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3일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자 이날 11시를 기준으로 도내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내렸다.

발령시각 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예보 등급 중 3단계에 해당하는 '나쁨' 단계이다.

초미세먼지는 입자 크기가 미세해 호흡기를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발물과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실외 수업을 자제하고 실외 활동 때에는 마스크나 보호안경을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민주당 도당 신년인사회

3일 전주 오벨리스 웨딩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신년인사회에 김춘진 도당위원장과 송하진 도지사, 시장, 군수들이 손을 들어 당원에게 인사하고 있다.

도내 골프장, 고독성 농약 '무'

도내 골프장이 고독성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25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규제대상인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된 이번 검사는 잔디와 토양, 연못의 수질 시료를 채취해 이뤄졌고, 사용 금지된 고독성 농약 3종을 포함해 인체 및 환경위해성을 고려해 선정된 총 28종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일부 골프장의 경우 잔디용으로 사용 등록된 일반 농약(저독성)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용 기자

도립공원 친환경적 맞춤형 정비 추진 계획

모악산·대둔산·마이산·선운산에 19억600만원 투입 수변산책로·데크 등 설치

도내 4개 도립공원이 수변산책로와 데크 등을 설치해 탐방객들이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도립공원으로 재탄생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4개소 도립공원을 도민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고 탐방객들이 즐기고 힐링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친환경적인 맞춤형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산악단체, 시민단체 등 12명으로 구성된 도립공원 전문가 자문단은 도립공원의 훼손형태와 지형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작업이 되고 자연친화적인 재료로 복원을 추

진하며,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인공 시설물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해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북도는 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등 4개 도립공원에 19억6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탐방로 정비, 데크설치 등 탐방객 편의를 위한 친환경적인 시설 설치와 상사화 등 다양한 조화류를 식재해 사계절 꽃피는 길을 조성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정비내용으로는 모악산은 금곡사길, 금령저수지 옛산길, 청룡사길

탐방로 구간을 아자메트 및 데크 설치, 대둔산은 용문골~마천대 구간 데크 설치, 마이산은 신촌~탐영계 구간 데크 설치, 선운산은 자연의집~평지리 구간 탐방로 정비 및 데크 설치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은 '2016년도 도립공원 이용객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도립공원의 이용형태, 개발과 보전에 대한 의견, 시설관리 등 '도립공원 이용객 만족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립공원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익산 성장산업들, '연이어 희소식'

이춘석, 3D휴대용스캐너·디자인융합벤처창업스쿨 성과 내

익산의 주요성장동력 산업들과 관련해 연이어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탄핵정국 속 바쁜 연말을 보내고 있는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의 활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 소식은 3D휴대용스캐너 개발지원사업이 '사업협약'을 통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이다. (재)전북테크노파크와 익산스마트융합기술센터에서 함께 주관하고 있는 동 사업은 2021년 10월까지 5년간 자동차·기계부품산업 연계 투과형 3D스캐너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두 번째 소식은 수시배정으로 묶여 있던 디자인융합벤처창업스쿨 사업에 산 48억이 지난 12월 최종배정된 것. 전국에 6개 지역의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호남권에선 익산이 유일하다. 동 사업은 본래 단년도사업이지만 2017년 이후에도 중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디자인융합벤처기업 육성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장차 익산의 성장동력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이 같은 미래형 산업들은 이춘석 의원이 직접 발굴해서 20대 총선에서 주요공약으로 내걸고 박차를 가해온 사업들로 고비고비마다 이 의원의 정치력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탄핵정국 속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으로 현재 재판을 이끌고 있는 와중에도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난안전특교(3억)까지 꼼꼼히 챙기며 지역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다.

이 의원은 “정국이 혼란스럽지만 이런 때일수록 민생을 챙기는 데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며, “중앙에서나 지역에서나 이 같은 성과들을 낼 수 있는 것은 모두 익산 시민들의 성원 덕분이다. 앞으로도 익산의 먹거리가 될 성장동력 산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현장까지 면밀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익산=정영원 기자

도내 김양식 호황... 황백화 예방 결과

도내 지역에서 김양식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배경에는 전북도가 김황백화 예방 등 지도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지난해 9월부터 군산시, 고창·부안군 김양식어장 9개 지역의 해수를 채수해 용존 무기 질소 등 영양염을 분석한 후 김양식 해황속보를 발간했다.

또한 전북도는 지난 28일 해양수산부 주관 '김 황백화 대책회의'에서 김양식 모니터링 및 해황조사를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를 받았다.

김수산지인 전남지역 일부에서 황백화 현상으로 김 작황이 부진하나, 전북도는 유례가 없는 김양식 작황이 풍년으로 지금까지 1만여톤 정도의 김을 생산해 490여억원의 소득이 예상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김대근 해양수산과장은 “수산기술연구소와 황백화,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김양식어장의 용존 무기질소 등 영양염을 정기적으로 분석, 김양식 해황속보를 발간해 어민 지도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도, 임산물 6차산업화단지 신규 조성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 일원... 2019년까지 3년간 50억원 투자

전북도는 2019년까지 3년간 50억원을 투자해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 일원에 임산물 6차 산업화 단지를 새로 조성한다.

산업화 단지 조성은 지역 특산물인 토종 떡식감과 구절초, 더덕, 산양삼 등 임산물의 가공·유통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임산물을 이용한 전통 음식품을 발굴하고 체험 관광화해서 농산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읍시는 드라마 대장금의 고향으로 경관이 빼어난 옥정호를 끼고 있고 구절초테마공원과 가까워 최적의

임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전국에서 6번째로 추진되는 전북 임산물 6차 산업화 단지는 산림청에서 2016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3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는 50억원이고 그 중 25억원을 국비로 지원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비로 임산물 가공·유통시설, 특산물 전시 판매장, 임산물을 이용한 전통음식 체험관 및 임산물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게 된다”며 “목적에 맞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정읍시와 심도 깊게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